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신 정신문화 창조



임 선 빈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장

1. 머리말

20세기 초에 망국의 쓰라린 경험을 했던 우리 민족은 20세기 중엽에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맛보았고, 20세기 말에 또 한번 망국에 버금가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만 했다. 우리는 아직도 서세동점(?)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가오는 21세기에 금세기(今世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금세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화시대이면서 동시에 세계화·개방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류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은 구태한 듯 하지만 언제나 참신하다. 충남의 신 정신문화 창조도 충남이 지나온 길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충남의 역사·지리적 배경을 먼저 살피고, 충남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백제문화와 선비문화를 검토한 후, 21세기 충남이 지향해야 할 정신문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충남의 역사·지리적 배경

충남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닌 곳이다. 일찍이 1960년대에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지가 확인된 이래, 공주·연기·서산 등지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으며¹⁾,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곳은 도내 전역에 널리 산재해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은 아주 이른 선사시대부터 이미 인간이 정착해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삼한시대의 충남지역은 마한의 영토였고, 삼국 시대에는 백제의 영토였다. 특히 백제의 문주왕 때 도읍을 한성(서울)에서 웅진(공주)으로 옮긴 이후, 백제가 망하기까지 186년간 충남의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다. 660년(의자왕 20) 백제가 망한 뒤에는 한때 당나라 도독부의 통치를 받았으나, 바로 신라에 병합되어 9주의 하나인 응주에 속하였다. 신라가 쇠퇴하면서 후백제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931년(태조 14) 고려에 통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995년(성종 14)에 관제 개정에 따라 전국을 10도로 나누었는데, 충남지역은 주로 공주·운주 등 11개 주를 관할하는 하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1106년(예종 1)에는 하남도가 관내도·중원도와 합쳐져 양광충청주도라 칭하여졌고, 1171년(명종 1)에는 두 도로 나뉘었으나 1315년(충숙왕 2) 다시 합쳐 양광도라 하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비로소 충청도로 개칭되었다.²⁾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에 양주·광주의

관할 군현은 경기도로 옮기고, 충주·청주·공주·홍주의 관할 군현은 충청도라 칭하여 충주에 관찰사를 두었다.³⁾ 1399년(정종 1)에는 영월군을 강원도에 붙이는 대신, 강원도의 영춘현을 충청도에 편입시켰고, 1413년(태종 13)에는 여흥·안성·음죽·양지·양성 등의 5군현을 경기도로 옮기고, 경상도의 옥천·황간·영동·청산·보은 등의 5군현을 편입하여 4목 12군 38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뒤 1598년(선조 31)에는 감영을 충주에서 공주로 옮겼다.

조선시대에 충청도(忠淸道)란 명칭은 충공도(忠公道)·청공도(淸公道)·청홍도(淸洪道)·공청도(公淸道)·공홍도(公洪道)·충홍도(忠洪道)·공충도(公忠道) 등으로 자주 바뀌어 불리기도 했다. 이는 충청도 관내의 고을 중에서 충주·청주·공주·홍주의 4고을이 대표적인 고을, 즉 계수관(界首官) 고을이었으므로 이 고을명의 머리글자를 따서 도명(道名)을 삼고 있었는데, 도명으로 사용되던 고을에서 역모나 강상의 윤리를 범한 변이 일어나면 그 고을에 해당하는 머리글자를 빼고 다른 계수관 고을의 머리글자를 넣어 도의 명칭을 고쳤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충청도에는 관찰사가 한 사람만 파견되어 통치되었

1) 공주시 탄천면 시목리, 계룡면 소학리, 반포면 마암리, 장기면 금암리,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반곡리,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등지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다.

2)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우왕 말년에는 평창현을 교주도에 이속시켰다.

3) 충주·청주·공주·홍주 등은 조선초기에 道制가 확립되기 전까지 주위의 군현을 영속한 界首官 고을이었다.

으나,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충주·청주 관할권은 충청좌도, 공주·홍주 관할권은 충청우도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1896년에 8도를 13도로 나눌 때 충청좌도를 충청북도로, 충청우도를 충청남도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충청남·북도가 완전히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충청남도가 등장한 것은 100여 년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 충청남도는 37개 군으로 구성되고 도청은 공주에 두었다.⁴⁾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평택군이 경기도로 편입되었고, 어청도·연도·개야도·죽도 등 4개의 섬이 전라북도에 이속된 반면, 전라북도 익산군의 일부(현재 강경읍의 일부)가 충청남도에 편입되고, 1932년에는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1963년에는 전라북도의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편입되었으며, 익산군의 황화면도 논산군에 편입되었다. 1989년에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됨으로써 대덕군이 대전시에 편입·폐지되었다. 충청남도는 1998년 6월 현재 6시 9군 22읍 147면 38동으로 이루어져 있다.⁵⁾

조선시대에 주로 충청우도에 해당했던 충청남도는 공주목과 홍주목이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다. 공주목과 홍주목은 고려시대부터 계수관 고을이었는데, 이와 같은 계수관 고을은 각기 지역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충남지역은 크게 계수관 고을이었던 홍주를 중심으로 한 '내포[가야산]문화권'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 '금강[계룡산]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은 전통적인 지리인식인 산줄기와 물줄기를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산줄기와 갈래를 알기 쉽게 만든 지리서인 「산경표(山經表)」에 의하면,⁶⁾ 한반도의 모든 산줄기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을 근원으로 하여 갈라져 나온다. 이 백두대간의 속리산 문장대에서 시작되는 한남금북정맥은, 청주의 상당산성을 바라보며 동쪽으로 돌아 죽산의 칠현산에서 다시 나뉘어 북으로 한남정맥, 남으로 금북정맥이 된다. 금북정맥(錦北正脈)은 칠현산에서 서남쪽으로 차령을 지나 남진하다가 오서산에서 북으로 방향을 틀어 가야산을 거치고 다시 서쪽으로 태안반도로 건너가 안흥진까지 이어진다. 산

4) 당시의 충청남도 37개군은 公州郡·燕岐郡·懷德郡·鎭峇郡·連山郡·魯城郡·恩津郡·石城郡·林川郡·韓山郡·舒川郡·庇仁郡·藍浦郡·鴻山郡·扶餘郡·定山郡·靑陽郡·保寧郡·鰲川郡·結城郡·海美郡·泰安郡·瑞山郡·唐津郡·沔川郡·德山郡·洪州郡·大興郡·禮山郡·新昌郡·牙山郡·溫陽郡·全義郡·木川郡·天安郡·稷山郡·平澤郡 등이다.

5) 충청남도가 등장한 이후 최근 100년간의 행정연혁은 지방행정구역연감(한국도시행정연구소, 1997) 812~814쪽 참조.

6) 조선후기의 실학자 申景濬(1712~1781)이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 山經表는 1913년에 최남선이 조선광문회에서 출판한 적이 있으며, 1990년에 다시 박용수의 해설과 함께 간행되었다.(신경준 지음·박용수 해설, 「산경표」, 1990, 푸른산)

줄기가 금강 이북의 산세이기 때문에 금북정맥이라 불리웠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내포문화권은 바로 이 금북정맥의 중심산인 가야산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지칭한다. 열 고을은 해미·결성·태안·서산·면천·당진·홍주·덕산·예산·신창 등으로, 오늘날의 아산시·예산군·당진군·서산시·태안군·홍성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래 내포(內浦)는 조선초기에 대진(大津 : 현재의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의 별칭, 혹은 대진이 속해 있던 고을인 홍주목의 속현 신평현을 칭하다가, 조선 중·후기에는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계수관 고을인 홍주진관에 속해 있던 인근의 18개 군현을 지칭하게 되었다.⁷⁾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충청도에서 내포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 지세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년과 병자년 두차례의 난리[임진왜란·병자호란]에도 여기에는 적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에 가야산이 있듯이, 충남의 내륙에는 계룡산이 있다. 그런데 가야산과 계룡산은 산맥의 족보가 다르다. 가야산이 금북정맥에 속해 있는데 반해, 계룡산은 금남정맥에 속해 있다. 백두대간은 지리산에 이르기 직전 영취산에서 장수를 북으로 끼고 돌아 주화산에서 금

남정맥과, 곰재에서 호남정맥을 만난다. 금남정맥(錦南正脈)은 전주 동쪽 마이산에서 북으로 치달아 대둔산·계룡산을 거친 후 서쪽으로 망월산을 지나 부여의 부소산과 조룡대에 닿는다. 필자는 금남정맥의 중심이 되는 산은 계룡산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지역을 '계룡산문화권' 또는 '금강문화권'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육로교통이 발달한 오늘날과는 달리 수로교통이 중요했던 전통시대에는, 산은 길을 막고 물은 길을 이어 주었다. 계룡산문화권을 이어주는 연결통로는 계룡산을 휘감아 흐르는 금강이었다. 금강은 보은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충북의 옥천군·회인현·문의현을 지나, 공주에 이르러 곰나루[熊津]가 되고,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白馬江)이 되고, 임천과 석성의 양읍 경계에 이르러 봉노진(蓬蘆津)이 되었다가, 서천군에 이르러 서해 바다로 들어간다. 바로 이 금강변의 공주와 부여에서 일찍이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다. 내포문화권이 고대 중국의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다고 한다면, 금강문화권은 이를 받아 꽃피운 지역이었다. 또한 어진이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듯이[仁者樂山], 계룡산 자락과 가야산 자락에서는 조선시대 기호학맥의 기라성 같은 중심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7) 내포의 개념 변천에 대해서는 오석민(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의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미간)에서 관련 문헌자료를 섭렵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3. 백제문화와 선비문화

충남의 전통문화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곳이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이다. 백제사, 백제문화를 거론하면, 후자는 망국의 역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 등장했던 나라 가운데 유사 이래 도대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었던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제국도 망했고, 당대에 인간 거주지역으로 알려졌던 영역의 절반을 지배했던 몽고제국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이와 같이 멸명했던 무수히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처럼 백제도 망한 것에 불과하다.

고구려도 망하고 신라도 망하고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는데, 우리는 유독 백제가 망한 것에 대해 강한 미련과 아쉬움을 갖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여에서 중흥하던 백제는 전쟁다운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나당연합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 갑자기 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백제의 멸망에 대해 강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지니게 되었다.

충남에서 전개된 찬란한 백제문화는 서해안을 따라 발달한 ‘바닷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이 바닷길은 흡사 오늘날의 철도교통이나 고속도로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내륙의 깊숙한 골짜기와 평야지대보다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화전과 루트였고, 한반도의 서해안을 경유하는 이 해로는 중국이나 일본을 연결하는 대외교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이 해로는 선사시대 한강유역의 문물과 통하는 통로였고, 그에 연한 포구들은 백제시대에는 중국문화와 처음으로 만나는 현관이기도 하였다.⁸⁾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마애불은 이곳이 고대에 중국 선진문화 수용의 창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애불은 자연암벽에 조각한 불상을 말한다. 마애불의 기원은 서기전 3~2세기경의 인도 아잔타나 엘로라 등의 석굴사원에서 볼 수 있고, 중국의 원강·룽먼 등의 석굴사원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다. 태안의 백화산 중턱에 있는 태안마애삼존불이 최초의 것이다. 백제는 태안마애삼존불을 통해 마애석상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인접한 서산마애삼존불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서산마애삼존불은 중국의 불교문화가 태안반도를 거쳐 부여로 가던 행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즉 태안반도에서 서산마애불이 있는 가야산 계곡을 따라

8) 이해준, “역사적으로 본 충남정신”(발표문), 충남 개도 100주년 기념 충남정신발양 심포지엄, 1996.

계속 전진하면 부여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데, 이 길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통하던 옛길이었다. 이 옛길의 어귀가 되는 서산마애불 인근은 산세가 우수하고 천하의 경승지여서 7세기 초에 중국 불교문화의 자극을 받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느 고고학자는 이 서산마애삼존불의 신비한 미소를 두고 ‘백제의 미소’라고 명명한 바 있다. 또한 예산에도 화전리 사면석불이 있는데, 이는 백제시대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사방불로, 세련미에서도 서산마애불에 버금갈 만하다. 이와 같은 내포문화권의 마애불 전통은, 이후 경북 봉화의 마애석불상을 거쳐 경주 남산의 여러 마애석상에까지 이어졌고, 드디어 신라 하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니, 실로 우리나라 마애불 조상(彫像)의 선구가 되는 셈이다.

서해안을 통해 수용된 중국의 선진문화는 백제 후기의 수도였던 금강문화권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공주는 475년(문주왕 1)부터 538년(성왕 16)까지 5대 63년간, 부여는 538년부터 660년에 백제가 망할 때까지 6대 122년간 각각 백제의 수도였다. 현재 공주에는 백제의 왕궁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특히

고고학계의 10대발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무령왕릉이 있으며, 부여에는 부소산성과 낙화암, 정림사지 5층석탑, 궁남지, 능산리고분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특히 최근(1993년)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대향로는 백제인들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이루어진 백제 공예품의 진수(眞髓)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는 바로 금강을 끼고 발달한 것이다.⁹⁾

이와 같이 바닷길과 강길이 만든 문화지리적 특징은 백제의 문화예술 수준을 ‘선진’과 ‘고도’로 설명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한다. 중국 남조와의 부단한 교류와 문화수용, 일본에의 문화 전파 능력, 통일 이후 신라의 예술에 기여한 백제 장인의 숨결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백제의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겠으나, ‘바다와 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문화’로 불려져도 좋을 듯하다. 바다와 강이라는 문화의 수용과 교류·전파의 열린 창구를 통하여 백제는 중국 남조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충남에서 꽃 피울 수 있었다.¹⁰⁾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던 충남이 조선시대

9) 따라서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공주에서 배를 타고 금강을 따라 부여까지 내려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강물이 얕아 배를 띄울 수가 없다고 한다. 다행히 금강변을 따라 공주에서 부여까지 백제 큰 길이 개설되고 있으니, 배를 대신하여 자동차로 백제인의 천도(遷都) 자취를 더듬어 볼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

10) 이 외에도 백제는 강과 바다에 연한 지역에서 발달했던 마한의 여러 지역문화를 한데 아우르며 다양한 문화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에 이르면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다. 선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서, 특히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킨다. 그런데 막상 일반인들은 선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듯 하다. 이는 조선 왕조의 멸망이 성리학과 양반 때문이라는 논리 때문으로 보인다. 망국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망할 당시의 지배층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조선망국의 책임도 상당 부분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양반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나라가 망한 책임을 같은 양반이라고 해서 수백년 전인 조선 중기나 전기의 양반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느 나라이고 언젠가는 망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망하기 직전의 사회는 대부분 타락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말기 향락에 빠진 귀족들의 타락한 생활 때문에 망했다고 해서, 전성기 로마제국의 건전한 귀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몽고제국 원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대제국을 건국한 칭기스칸이나 쿠빌라이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에 조선이 망했다고 해서 조선 중기의 양반이나 선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들은 같은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의 지배층에 비해 건강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조선 선비에 대하여 갖고 있는 꼬장꼬장하고 깐깐하다거나 꿈생원 같

다는 표현은 조선 말 망국대부(亡國大夫)가 된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방어적으로 편향된 지식인상에 불과하다. 사림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의 선비들은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이라 보수세력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었다.

선비문화의 전성기는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충남은 선비문화의 중심지였다. 일찍이 여말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던 시기에 충남 출신 학자들은 성리학 수용과 연구에 앞장섰으니, 보령 남포의 백이정과 서천 한산의 이색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충남에서 불사이군의 충절을 실천한 많은 사람과, 국가적 환란기에 선비정신을 발휘한 충절 인맥과, 조선조 예론의 요람으로 불려질 만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확고한 선비문화의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다.

대개 충남의 선비정신이나 양반문화를 상기하면, 으레껏 사계 김장생이나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 등 조선 중기의 인물들을 먼저 떠올린다. 당연히 그럴만한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들에게 집중된 인식이 오히려 충청지역의 전체적인 선비문화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충남에는 이들에 앞선 15~16세기에도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었다. 15세기에는 불사이군의 충절을 실천했던 성삼문과 박팽년이 주목되며, 16세기에는 <토정

비결》의 작자로 널리 알려진 토정 이지함, 기수지학(氣數之學)에 밝았던 고창 서기 등이 충남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고창 서기는 공주의 공암에 충남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인물로, 보령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나 만년에 20여 년 간 계룡산 자락에서 후학을 양성하여 계룡산 문화권에 성리학적 학풍을 배태시킨 인물로 이해된다.¹¹⁾

충남은 조선시대 유학의 중심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유학이 크게 영남 유학과 기호유학으로 대별되는데, 기호유학의 중심이 바로 충남이었기 때문이다. 기호유학은 대체로 율곡을 조종(祖宗)으로 전개된 것인데, 그의 대표적 문인이라 할 수 있는 사계 김장생, 중봉 조현이 모두 충남과 인연을 맺고 있다. 기호학파가 실제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해 간 것은 김장생 이후로 볼 수 있다. 김장생은 ‘동방예학의 종장(宗匠)’으로 일컬어지듯 율곡 이이의 적통이다. 그의 문하에서 신흠·이시백·조익·김집·송시열·송준길·이유태·김경여·장유 등이 배출되었다. 또 그의 아들이자 문인인 김집은 부친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고, 그의 문하에서 송시열·송준길·이유태·윤선거·유계 등이 배웠다. 이 중 우암 송시열은 김장생의 적전(嫡傳)으로 성리학·예학 등에 밝았고, 특히 효종과 함께 북벌계획에 참여하여 북벌의리에 정성을 다했다. 동춘당 송준길 역시 성리학과 예학에 밝았으며,

도학적(道學的) 실천의 모범으로 전해진다. 충남의 유학자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가 팔송 윤황, 미촌 윤선거, 명재 윤증이다. 이른바 소론계열 유학자라 불리우는 이들은 윤황이 우계 성혼의 사위요, 윤선거는 윤황의 아들이고, 윤증은 윤선거의 아들이니 모두 가학적(家學的) 학통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회 권득기, 탄옹 권시, 유희당 권이진으로 이어지는 권문(權門)의 유학자들도 17세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다.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으나 다르냐 하는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 일명 湖洛論爭)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洛論)의 입장에 섰던 외암 이간은 지금은 민속보존마을로 더 널리 알려진 온양의 외암리에서 살았고,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湖論)의 입장에 섰던 남당 한원진은 대하관광지로 유명해진 결성[홍성]의 남당리에서 살았다. 이들은 17세기 이후 한국유학사에서 호락논쟁의 불을 당긴 성리학자들로서 높이 평가된다. 또한 기일원론의 독특한 성리학을 전개했던 녹문 임성주도 공주를 무대로 활동했으며, 북학과 실학의 선구자였던 담헌 홍대용도 천안지역에 연고를 갖고 활동한 바 있다. 예학에 능했던 초려 이유태, 시남 유계, 주자학적 경전해석에 반기를 들고 자주적 학풍을 열었던 백호 윤희 등도 충남을 무대로 활동한 인물들이다.

11) 충남의 성리학도 내포문화권에서 수용되고 금강(계룡산)문화권에서 꽃피었다고 할 수 있다.

면암 최익현은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에 앞장섰던 한말의 큰 유학자였고, 청의 석학들과 금석학(金石學)의 교류를 가졌던 추사 김정희도 충남이 낳은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유학사에서 충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고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라고 자부해도 좋을 성싶다.

흔히 선비문화를 논하면 문약(文弱)을 들먹이곤 한다. 문치주의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시대의 사림정치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비 개개인은 결코 나약하지만은 않았다. 선비들의 현실비판과 개혁정신은 종종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비정신은 오늘날의 나약한 현대인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충남정신과 21세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새시대를 이끌어 나갈 신사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 융성의 저변에는 언제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정신이 있었다. 작금의 시대는 물질적 풍요로부터 정신적 성숙을,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정치적 민주화를,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자치를, 국가우위 대립으로부터 국제우위 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신사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충청남도에는 1989년에 현대사회문제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하여,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제」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충남의 5대정신을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으로 설정하고, 이 5대정신을 내세우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충남에서 출생했거나 인연을 가진 인물들의 업적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 5대정신을 현대적으로 조망하여 충효정신은 애향심으로, 절의정신은 정의실현으로, 선비정신은 청렴결백으로, 예의정신은 질서의식으로, 개척정신은 협동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¹²⁾(표 참조)

이와 같은 충남 5대정신은 나름대로 충남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상당히 의욕적인 연구로 한 나라의 정신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시대정신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연구에 대해 그동안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다. 먼저 한국인은 작은 국토에서 같은 언어·역사·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왔는데, 지역정신으로서의 독특한 충남정신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비록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과 처한 환경은 차별성을 지녀 왔다고 할 수

12) 충청남도,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제(보급판), 1991.

〈표〉 충남 5대정신과 근거로 제시된 사례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에 의함)

5대정신

충 남 의 사 례 (인물)

현대적 조명

[백제] 海東曾子의 칭송을 받은 義慈王(?~660)의 효행 / 죽음에 임하여도 上奏한 成忠(?~656)의 충절 / 나당연합군 방어의 양책을 말한 興首(?~660)의 충성 / 모친의 병치료에 자신의 살을 낸 向德(신라 경덕왕대)의 효성

[고려] 부원수인 姜民瞻(963~1021)의 글안군 패퇴 / 양계병마사를 여섯 번이나 역임한 徐恭(?~1171)의 효행 / 지혈로써 모친을 소생시킨 韓皐(1156~1241)의 효행 / 원나라 惠宗을 감탄시킨 李穀(1298~1351)의 충정 / 홍건적의 침입을 미리 상서한 普愚(1301~1382)의 선견지명 / 辛旽을 내몰도록 직언한 張夏(1326~1399)의 충성 / 권신들을 탄핵하여 10년간 유배생활을 한 李詹(1345~1405)의 강직

충효정신

애 향 심

[조선] 淸愼勤 등 當官之法을 실천한 孟思誠(1360~1438)의 충성과 효행 / 국난에 나라를 구한 李舜臣(1545~1598)의 위대한 충효정신 /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전투를 총지휘한 金時敏(1554~1592)의 지략 / 이순신을 도와서 왜선을 대파한 李億祺(1561~1597)의 충의정신 / 국난극복에 공을 세운 鄭忠信(1576~1636)의 지모와 용기 / 주자학의 거유 宋時烈(1607~1689)의 春秋大義 정신 / 「구운몽」의 작가인 유복자 金萬重(1637~1692)의 효심

[한일투쟁] 문신이며 학자인 崔益鉉(1833~1906)의 의병운동과 대의정신 / 홍주의병들의 충의정신 / 임시정부에서 조국 광복에 힘쓴 李東寧(1869~1940)의 충의정신

[백제] 처자를 베고 출전한 階伯(?~660)의 비장한 충의정신 / 백제의 부흥운동에 전력한 福信(?~663)의 충성 / 정절을 지킨 都彌의 아내(백제 개루왕대)의 節行

절의정신

정의실현

[고려] 왜구·홍건적 등의 토벌에 대공을 세운 崔瑩(1316~1388)의 순절 / 사직을 편안케 한 柳淑(?~1368)의 충직 /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바친 李穡(1328~1396)의 높은 지조 / 불사이군을 몸소 실천하여 타살된 李種德(고려말)의 충의정신 / 관직을 사퇴하고 학행과 후진교육에 힘쓴 吉再(1353~1419)의 절개

5대정신	충 남 의 사 레 (인물)	현대적 조영
	[조선] 야인들을 격퇴하여 6진을 개척한 金宗瑞(1390~1453)의 지용 / 단종복위를 도모한 朴彭年(1417~1456)의 절의 / 충절로써 비운을 겪은 成三問(1418~1456)의 절의정신 / 700의병과 함께 분전한 趙憲(1544~1592)과 靈圭(?~1592)의 精忠과 大節	정의실현
	[조국광복정신] 청산리전투를 총지휘하여 대승을 거둔 金佐鎭(1889~1930)의 애국정신 / 독립만세를 외친 순국처녀 柳寬順(1904~1920)의 애국정신 / 국수 왜적들을 토벌한 尹奉吉(1908~1932)의 충의정신	
선비정신	역학의 대가인 李之函(1517~1578)의 安貧樂道 / 諸子百家의 進修踐履 이론에 통달한 徐起(1523~1591)의 예지 / 암행어사로써 탐관오리를 숙청한 朴文秀(1691~1756)의 기민구휼 / 秋史體를 대성한 명필 金正喜(1786~1856)의 탐구정신 / 대중계몽에 헌신한 李商在(1850~1929)의 신의 / 33인의 민족대표로 독립을 선언한 韓龍雲(1879~1944)의 지조	청렴결백
예의정신	신분이 미천하나 세인의 존경을 받은 宋翼弼(1534~1599)의 학문과 인격 / 예학의 태두 金長生(1548~1631)의 덕행 / 알맞은 실지생활을 실천한 金集(1574~1656)의 예의정신 / 誤禮殺人의 불가함을 상소한 權譔(1604~1672)의 의리정신 / 자기를 스스로 탄핵한 도학군자 宋浚吉(1606~1672)의 예의정신 / 遺疏와 遺書를 남긴 우국지사 宋秉璿(1836~1905)의 의리정신	질서의식
개혁정신	경세치용의 대가 梁誠之(1415~1482)의 실천철학 / 지구의 自轉說을 설파한 洪大容(1731~1783)의 혁신적 사회개혁사상 / 25세에 순교한 한국 최초의 신부 金大建(1822~1846)의 전교 / 혁신적 정열을 가진 선각자 金玉均(1851~1894)의 개화지사 / 독립문 건립을 주도한 徐載弼(1866~1951)의 조국애 / 상록수정신과 계몽운동 / 향약과 지역개발정신 / 애향정신과 새마을운동	협동심

있으므로, 지역정신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서양의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정신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행사가 수 백년간 이어져 내려 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일제시대, 근

대화 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역민의 단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정신 역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천년 역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스며 내려온 지역성이 완전

히 소멸된 것은 아니며, 우리 의식의 저변에는 언제나 지역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신이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감정이라는 왜곡된 지역정신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지역민들끼리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신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지역정신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현재의 의미로 재조명하며, 한발 나아가 한민족 전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¹³⁾

다음으로 충남 5대정신이 다른 지역정신과 분별되는 충남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5대정신 가운데 선비정신이 다른 4대정신과 동일한 위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충남정신이 충남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다른 지역과는 다소 구별되는 충남인의 기질적, 정신적 특성이라고 일컬을 때, 부분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특성과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선비정신의 경우에는 선비가 유학에서 일컫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할 때, 다른 4대정신을 모두 지닌 인간이어야 참된 선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충남의 역사에 충실하게 기반하고 있는 충남 5대정신은 전통

시대의 선비상(像)을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충남 5대정신이 충남의 전통을 충실하게 반영하고는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시론적이기는 하지만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충남정신으로 청명정신과 조화정신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남 5대정신이 전통시대의 선비상에서 추출된데 반해, 청명정신과 조화정신은 미래의 선비상에 해당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⁴⁾

청명정신(淸明精神)의 '청명'은 충청도를 상징해 온 '청풍명월(淸風明月)'의 준말이다. '청풍명월'이 자연을 설명한 용어인데 여기에서 정신을 담보하는 인위적인 용어로, '청풍'과 '명월'의 머리글자인 '청'과 '명'을 따서 조어(造語)한 것이다. 충남 5대정신이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으로 정립되었는데, 이 가운데 '선비정신'은 나머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흔히 지적되어 왔다. 충효·절의·예의·개척은 과거 동양의 바람직한 인간상인 '선비'의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과거의 선비상에서 느낄 수 있는 '청렴(淸廉)하고 명철(明哲, 혹은 賢明, 分明, 高明)한 선비'와 '청명정신'을 쉽게 연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청명정신'을 다가오는 미래의 지도자상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¹⁵⁾

13) 충청남도 태안군·충남발전연구원, 태안정신 정립에 관한 연구, 1997, 9~10쪽.

14) 여기에서 시론적으로 제시되는 청명정신·조화정신은 선언적인 측면이 강한 것임을 밝힌다.

‘청명정신’, ‘청명운동’, ‘청명사회운동’, ‘청명정신운동’ 등의 표현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인간상(人間像 : 충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 혹은 清白吏<사실 청백리는 봉건시대의 표현>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을 ‘청명인(淸明人)’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청명(淸明)’을 우리말로 풀어 쓸 때에는 ‘맑고 밝은’이라는 의미이니, ‘깨끗한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자연을 상징하는 ‘청풍명월’에서 ‘청명’을 ‘맑고 밝은 환경보전’으로 연계시킬 수도 있으며, 도민에게는 ‘청명’이 ‘미래의 맑고 밝게 웃는 세상’, ‘맑고 밝은 세상’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21세기는 정계·경제계·관계 할 것 없이 모두가 보다 투명한 사회,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조화정신(調和精神)도 충남정신을 대표할 만하다고 생각한다.¹⁵⁾ 충청도는 지형학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산과 강과 평야가 적당히 펼쳐져 있으며,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타지역에 비해 적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옛부터 충청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일컫게 되었고,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충청인의 기질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충청인은

비교적 온순하다는 평을 듣는다. 부딪혀 싸우기 보다는 차라리 순응하는데 익숙하다. 자기 주장을 고집해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얘기를 듣고 이해해 주는 편이다. 이쪽 저쪽의 싸움 편에 서기보다는 싸움을 말려 화해를 도모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무슨 일에 곧장 행동하기보다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신중한 편이다. 자기의 표현을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소화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충청인은 전라도·경상도 어느 지역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은 충청인의 기질적 특성에 너그러움과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충청의 그릇은 흰색·검은색·노란색·파랑색을 다 담을 수 있고, 전라도·경상도를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진보와 보수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큰그릇이다. 이는 피상적으로 보면 충남정신의 커다란 단점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참으로 훌륭한 장점이다. 충청인은 마음을 비우고 승부욕을 떠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편 저편, 이쪽 저쪽의 중간에서 양편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는 중용 철학에서 일컫는 ‘시중(時中)의 도(道)’를 실천하는 길이다.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지역감정·지역갈등을 해소하고, 21세기에 분

15) 선비정신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흔히 한말 선비의 무능하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현대사회나 미래사회에서 사용되는 것이 주저되어 왔는데, 이를 ‘淸明精神’, ‘淸明人’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조화정신은 이미 1996년에 개최된 충남정신발양 심포지엄에서 황의동 교수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황의동, “충남정신의 현대적 조망”(발표문), 충남 개도 100주년 기념 충남정신발양심포지엄, 1996).

단된 조국의 남북통일을 달성하며, 동양의 정신 문화와 서양의 물질문명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정신이다.

5. 맺음말

충청남도라는 도명이 사용된 지는 100여 년 밖에 되지 않지만, 충남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닌 곳이다. 전통시대에 홍주목과 공주목, 가야산과 계룡산으로 상징되던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은 각기 독특한 문화전통을 지니면서도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다. 역사적으로 충남은 찬란한 백제문화와 조선시대의 간간한 선비문화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충청남도에서는 일찍이 20세기의 시대정신으로 충남 5대정신을 설정하여 발양해오고 있다. 이는 충남의 역사와 전통이 충실하게 반영된 성과품으로 전통시대의 바람직한 선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필자는 이를 수용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 충남의 시대정신으로 청명정신(淸明精神)과 조화정신(調和精神)을 제시해 보았다. 이는 미래의 선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구가하던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는 주어진 자원 속에서 절약하는 생활과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 될 수 있을 듯하다. **열린충남**

